

협 회 및 회 원 소 식

□'90년도 원유검사 보조원 교육 실시□



지난 5월과 9월 2회에 걸쳐 각유업체의 탱크로리의 증차 및 원유검사 보조원의 부족인원 충원과 원유검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각유업체에서 추천된 인원 150여명을 입교시켜 원유검사 보조원으로써 구비해야할 제반교육을 실시하여 원유집유에 기여하고 있다.

□코코아를 함유한 조제식료품 수입산업피해 구제신청□

지난 3월 국내전지분유가 2만톤을 육박하는 체화현상으로 그 소비책을 모색하던중 분유가 80%이상 함유되는 코코아분유가 수입되어 국내 유가공업계의 분유소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당협회는 대외 무역법 제32조에 의거 긴급히 상공부에 산업피해 구제신청을 하므로써 무분별한 코코아분유 수입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제과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현재 수입

자유화 품목을 수입시 국내분유 수급사항의 파악과 유가공협회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수입이 되도록 하므로써 관련제품의 국내 수입을 억제하도록 하였고 향후 계속 수입의 증가추세를 확인 하므로써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에 영향이 미칠 경우 즉시 대응할수 있도록 했다.

□낙농특별 대책위원회 발족□

최근 낙농선진국의 농산물 수입개방 압력이 거세어지는 현시점에서 UR협상의 조기대응방안을 수립하여 낙농유제품의 경쟁력제고와 수입개방압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국유가공협회, 낙농육우협회, 축협중앙회, 전국낙농업 협동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에서 지난 9월5일 “낙농특별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또한 낙농특별 대책위에서는 UR협상대응 방안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여 청와대, 경제기획원, 상공부, 재무부, 민자당 평민당, 민주당, 국회및 학계, 언론계 등에 보내어 우리 유가공업계의 입장을 밝혔고, 회원사에도 관련자료를 보내어 UR 협상시 대응방안에 대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하였고 유제품을 NTC품목(비교역적관심품목)으로 선정토록 하였다.

□'90우유 유제품의 품질관리및 연구개발 워크-샵 개최□

당 협회(회장: 김문조)는 지난 11. 8일부터 9일까지 창영 부곡 관광호텔에서 전유업체 공장장, 생산부장, 품질관리부장을 대상으로 우유, 유제품의 품질관리및 연구개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이날 전국의 유업체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91년도 식품위생시책 방향과 UR 협상타결시 국내유가공업계의 대응책에 관한 진지한 발표 및 토론이 있었고 주제 및 강사는 다음과 같다.

- 91년도 식품위생관리 시책방향(보사부 위생제도과 이근선 계장)
- 한국유제품의 국제 경쟁력과 기술연구개발(서울농대 김현욱 교수)
- 주제에 대한 토론 및 질의

□ "우유수급안정대책" 대정부건의 □

한국유가공협회(회장: 김문조)는 현재 국내 우유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므로 인하여 우유수급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지난 12월 정부에 건의하였다.

이번 우유수급 안정대책건의는 원유부족에 따른 파급효과가 학교우유급식 부분적 중단, 유업체간 과도한 집유쟁탈등 심각한 사회문제까지 야기되므로 이에 협회에서는 기획실장 회의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한 91년 원유수급사항을 검토한 결과 91년은 원유부족이 심화될 것을 고려하여 낙농가 이익을 보존할수 있는 수준에서 종합대책안을 수립 건의하게 되었다.

이번대정부 종합대책건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91년도 적정재고를 포함한 원유부족이 146천톤 ~ 153천톤(분유환산: 17천톤 ~ 18천톤) 예상되

어 일차로 5천톤을 긴급 수입하고 잔여량은 수급현황을 검토후 분할수입

- 3월중 물량확보를 위해 납기등을 고려할때 12월중 수입문제가 결정되어야 한다.
- 수입물량의 책임있는 처분과 배분 및 도입기간의 단축을 위해 수입기관을 한국유가공협회로 지정토록 건의
- 분유 수입에 따른 차액은 낙농가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의
- 최근의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있는 원유유통 질서 문란과 집유쟁탈전 등 원유부족에 따른 심각한 행위를 진정 시킬수 있도록 조속한 분유 수입이 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 제6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 시상 □



당협회(회장: 김문조)는 지난 12월 18일 축산회관 대강당에서 제6회 어린이 우유장학금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어린이 우유 장학금 글짓기 대회는 어린이들의 작문실력 향상과 우유 유제품에 대한 소비확대를 촉진하는 공동홍보의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는 행사로서 6회째인 올해에는 전국에서 총 2천8백94편이 응모, 새싹회(회장: 윤석중)에 심사를 의뢰하여 당선작을 발표 시상을 하였으며 입상자 및 시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최우수(1): 농림수산부장관 상장 및 장학금 수여
윤신우(경남거제수월국 4학년) 나는 우유를 먹고 자랐다.

▲우수(2): 한국유가공협회장 상장및 장학금 수여

이선영(전북 김제 중앙국 6학년) 우유의 힘
홍석준(경남 거제 오랑국 5학년) 나는 우유대장

▲가작: 5편 ▲입선작: 10편 ▲장려상: 30편등
총 48편이 당선되었다.

□파스퇴르유업 대법원 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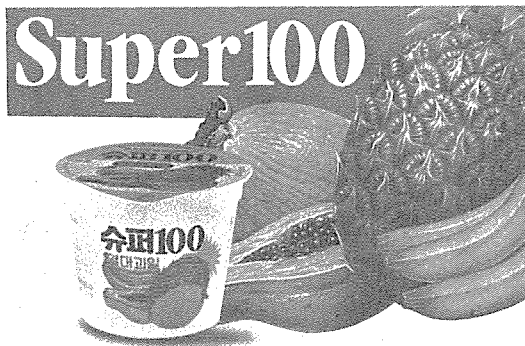
—허위과장비방 광고를 일삼아온 파스퇴르유업
대법원 패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지난 10월 파스퇴르유업측에 과대광고에 대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원심을 확정판결하였다. 이로써 우유에 대한 저온 장시간 살균법만이 진짜우유라는 근거도 없는 억지 주장으로 장장 3년간에 걸쳐 소비자를 우롱해온 파스퇴르유업이 마침내 대법원에서 패소하므로써 우유에 대한 장기간의 싸움은 끝나게 되었다.

이에 당 협회는 우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파스퇴르의 대법원 패소판결과 파스퇴르가 주장한 IDF(국제유업연맹)에서 인정하는 진짜우유탄생등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우유에 대한 진실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다.

□한국야쿠르트 신제품

“슈퍼-100 열대과일” 개발시판□



한국야쿠르트(대표: 이은선)는 지난 11월 1일 신제품 슈퍼-100 열대과일(Tropic Mix)을 개발시판하였다. 이번에 출시한 슈퍼-100 열대과일은 기존슈퍼 100에 열대과일 4종(파인애플, 바나나, 파파야, 구와바)을 20% 첨가하여 유산균 발효유의 영양과 함께 열대과일의 신선한 맛을 즐길수 있도록 하였다.

슈퍼-100 열대과일의 개발배경은 기존 농후발효유 시장이 딸기, 복숭아가 판매의 주종을 이루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폭이 좁고, 다양한 과일맛을 찾는 고객이 늘고있어 이에 부응키위해 슈퍼-100 열대과일을 개발케 되므로써 품목의 다양화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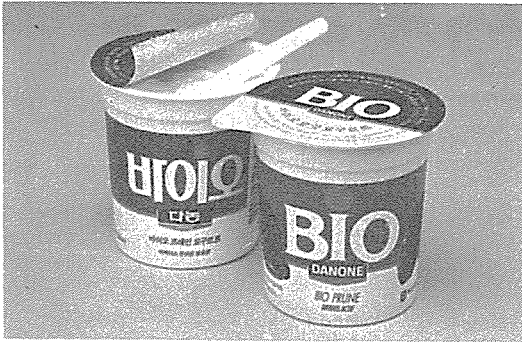
□건국우유 농축발효유 “닥터유” 개발시판□



건국우유(회장: 유승운)는 지난 11월부터 고농축 발효유인 “닥터유”를 개발하여 시판에 들어갔다. 닥터유는 유산균이 풍부하며 정장효과가 뛰어난 건강장수 식품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이 제품은 서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우유농축 방식인 UFS(Ultra Filtration System) 방식을 국내최초로 도입 단백질 함량을 높인게 특징이다. UFS 방식이란 우유속에 있는 단백질, 유지방, 유당 등이 유산균과 영겨 걸쭉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탈지분유를 넣는 대신 원유를 그대로 농축시키는 방법이다. 이 방식으로 여과시킬 경우는 같은양의 원유보다 단백질 함유량이 4.4%이상 높아지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두산유업 신제품

“비피더스 요구르트 다농바이오” 개발시판□



두산유업(대표: 낭궁 혁)은 지난 11월20일 신제품 다농바이오를 개발시판하였다.

이번 두산유업이 출시한 다농바이오는 지난 3월 다농요구르트를 출시하여 이미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세계적 요구르트 회사인 “저베이 다농”사의 기술지도에 의해 만들어진 정통비피더스 요구르트로서 비피더스균은 장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장의 운동을 촉진시켜 변비치료와 암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최근 일본, 유럽 등의 학계 연구보고서에 발표된바 있다. 동 제품은 과일이 들어있지 않은 프레인 요구르트(PLAIN YOGHURT)와 오래전 부터 서양에서 변비치료

제로 사용해 오는 오얏이 바닥에 깔려 있는 오얏 요구르트(PRUNE YOGHURT) 2종이 있으며 다농바이오 오얏 요구르트는 2 LAYER SYSTEM 으로 제조되어 음용시 두가지맛을 모두 즐길수 있을 뿐더러 기호에 따라 맛을 조절해가며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전화번호 변경안내□

삼양식품(주) 유가공공장의 전화번호가 한국전 기통신공사의 전자교환시설의 개통으로 다음과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용에 착오없으 시기를 바랍니다.

— 다 음 —

- 1) 변경일시: 1990년 11월 21일 00:00시
- 2) 변경전화번호: 지역번호 037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중 역 실	44-7500	731-3310	
교 환	42-0151~3	731-3311~5	(5대)
업무·수송	44-7503	731-3316	
낙 농 부	44-7502	731-3317	
F A X	47-9401	731-3318	

